

2030 장애여성
섹슈얼리티모임
'레드립' 기록집

#Re_드립

목차

#Re_스킴

2030 장애여성
섹슈얼리티모임
'레드팁' 기록집

여는 글 04

장애 06

몸 14

생리 22

영화 속 장애여성 27

자위 34

섹스 40

독립 48

편집자 후기 55

여는 글

2030 장애여성섹슈얼리티 모임 레드립(이하 레드립)은 비장애, 이성애,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레드립은 2030대 지체, 뇌병변 장애여성들이 모여 장애, 섹슈얼리티, 독립, 노동, 관계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장애여성의 관점에서 말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자조모임이다.

04

많은 장애여성들이 일상에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장애인’으로서의 경험을 더 크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장애 이외에 다른 정체성을 고민해볼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아예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혹은 피해자로서의 이야기들만 넘쳐난다.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2016년, ‘섹슈얼리티’라는 낯선 주제에도 장애여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부터 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이전까지 없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을 조금씩 들춰보면서 내 경험에 집중하는 과정들에 익숙해져갔다.

레드립 모임을 이끌어온 사람들에게 이 공간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이자 시도의 공간으로,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동료로 만드는 공간으로, 그리고 일상의 차별로부터 거리를 두고 해방감을 갖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장애여성들이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경험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차별’을 말하고 이 차별의 경험이 나 혼자만의 경험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차별에 함께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는 방식들을 고민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그리고 올해, 레드립이 지난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레드립 기록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레드립 기록집’의 제목인 「Re_드립」은 ‘re, 다시’, ‘애드리브, 하고 싶은 대로’ 라는 의미로, “장애여성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장애여성의 언어로 담는 것”을 의미한다.

05

이 기록집에는 장애여성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분명, 이 경험들이 어떤 말로 정리되거나, 하나의 뚜렷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제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장애여성들의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이 대화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각자의 경험과 맞닿아있는 순간을 찾았을 때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장애

장애를 처음 인식하게 된 순간
장애를 받아들인다는 것

나는 내 몸이 괜찮았거든...!

제이 장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 있었어?

라인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나보고 “어디가 안 좋아?”라고 대놓고 물어보고 같이 놀았거든ㅋㅋㅋㅋ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장애에 대해 질문하지 않고 점점 조심스러워 하는 게 느껴졌어. 대학에 입학했을 때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 자기 소개하는 시간에 동기들한테 내 장애를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 굳이 말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서로 관계가 없으니까 내 장애를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

한별 맞아ㅋㅋ 근데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잖아. 사실 장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 실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 궁금할 수도 있고. 일상에서는 너무 많이 묻는 것이 문제이긴한데 그래서인가, 오히려 안 물어보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어 ㅋㅋㅋㅋ 예전에는 내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어렵고 소극적이었다면 지금은 물어보면 대답해줄 수 있는 정도?

앤 나는 반대야. 어렸을 때 비장애인인줄 알았어ㅋㅋㅋㅋ 친구들과 내 몸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인식하게 된 것 같아.

빨간 속마음 나도!!! 내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몰랐어. 근데 나보고 “장애인이야!”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장애인이지...? 잘 모르겠더라고 ㅋㅋㅋ

한별 장애인이라는 말은 그냥 욕인 줄 알았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애자’라는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 때는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랐지. 심지어 따돌리기도 했었는데 나는 그냥 애자인가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 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어.

제이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알게 됐어. 일반학교가 아니라 재활학교에 들어가면서 내가 장애인구나, 이런 게 장애구나 싶었지. 사실 내 장애를 언제 인식했는지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 나는 내 몸이 괜찮았거든 ㅋㅋ 시기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나.

라인 나는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선생님 혹은 친구들이 ‘도와준다.’고 해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 나 같은 지체장애학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무언가를 혼자서 요구하기 어렵고. 비장애중심의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바꿔야 했어.

앤 나도 혼자였어. 하나 기억나는 건 나한테 “장애인이야!”하고 도망갔던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받았던 거 같은데 누가 봐도 내 존재감은 확실하니까... 학교생활하면서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살고 싶었지.

빨간 속마음 근데 전교생이 다 알아 ㅋㅋㅋㅋ

만약에 장애가 없어지는 약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한별 내 장애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해?

제이 장애를 받아들인다는 거...? 음... 나는 내 몸을 100% 받아들인다는 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 평소에는 내 장애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장애가 있는지 까먹을 때도 있지만, 나의 장애를 드러내야 할 때 순간순간 멈칫 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아, 아직도 내 장애를 수용하지 못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빨간 속마음 나도 익숙해져 있던 공간을 벗어났을 때! 어제는 처음 가는 모임이 있었는데,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솔직히 불편했어...! 괜히 눈치 보게 되고. 물론 내 성격일 수도 있는데 내 장애를 보여줘야 하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겠더라고.

험 그랬구나... 나는 지금도 장애는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뭔가 다 불편해. 집 안에서 있을 때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밖에 나오면 당연히 더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 이 모임을 나오기까지도 굉장히 망설였지. 사실 이 자리도 쯔름 불편한데 티 안내고 있는 거야!!!

앤 진짜 티 안나! 그래서 더 충격인데? ㅋㅋㅋㅋ

제이 농담이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장애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요새 2차적인 장애가 오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몸을 드러내는 게 싫어. 내 몸의 장애는 여러 가지인데 나도 아직까지 낯선 내 장애를 상대방에게 들킬 때면 내 스스로가 되게 부끄러운 거야. 장애가 보여 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장애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들킨 것 같아서... 남에게 보여 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게 혼란스러운 거?

한별 그 말은 정말 공감된다. 나도 내 몸이 미울 때가 있어.

앤 나도 매번 그래. 손에 강직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뻗쳐서 얼굴을 긁을 때가 있는데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손톱을 기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근데 얼굴 할퀴까봐 일부러 안 기르는 거거든 ㅋㅋㅋㅋ

빨간 속마음 장애를 100% 받아들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 “만약에 장애가 없어지는 약이 있다면 그걸 먹을 거야?”라는? 나는 장애가 있는 내 몸이 솔직히 불편해. 아주 간단한 예로 식당을 찾

아가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잖아.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그거...! 근데 문제는 내가 이런 내 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말하면 “너는 왜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해서 속 시원하다.

제이 그니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꼭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에게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면 좋겠지만, 다양한 몸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회는 왜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내 몸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타협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에는 관촬아지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

내 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_____가(이) 있는 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장애
통증
질병
똥똥한



콤플렉스가 있는 몸
보조를 받는 몸
통제당하는 몸

너는 그 옷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몸이 다 드러나잖아

16 **제이** 다들 알겠지만 안 쓰는 근육은 퇴화될 수밖에 없잖아. 어떤 사람이 나보고 “새다리 같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부터 콤플렉스가 났어. 상체가 크고 하체는 점점 말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찌라는 건지...!!! 사실 내 장애 특성인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ㅋㅋㅋㅋ 지금은 그냥 내 체형일 수도 있겠다... 싶어 ㅋㅋ

라인 나도 예전에 내 다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했고,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 했어. 보여주기 싫고 그랬는데 20대가 되고서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

빨간 속마음 맞아. 나도 지금은 휠체어를 타지만 예전에는 좀 걸어 다닐 수 있었어. 걸어 다니면 지금보다 몸이 더 잘 드러나잖아. 약간 절뚝거리면서 걷는 내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그게 좀 콤플렉스였어. 허리나 다리가 휘어있으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짧은 바지 입고 있으면 다리 보인다고 가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복을 입으면 허리가 휘어서 뒤에가 뜨는데 너

무 짧아 보인다고 말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아무렇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느 순간 내 콤플렉스가 났어. 나한테 콤플렉스는 주입된다고 해야 하나? 난 장애가 있어도 휠체어를 탔을 때 내 모습이 괜찮거든.

앤 나는 안면장애가 있어서 긴장을 하면 얼굴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그게 좀 콤플렉스야.

빨간 속마음 그렇구나. 나는 척추가 앞으로 휘어있는데 지금보다 예전이 더 심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의 비장애여성 친구들을 보면서 내 몸을 비교했던 것 같아. 그런데 20대 중반이 지나서는 내 몸을 숨기지 않고 싶더라고. 사실 그러면서도 밖에 나가야 할 때는 꼭 오른쪽 가슴에 보형물을 넣고, 치마는 오른쪽이 더 길어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 그런데 말이야... 사회에서는 이미 이런 몸이 예쁘고 아름다운 몸이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어찌면 내 몸에 콤플렉스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만약에... 다양한 몸에 대한 상상이 가능해지는 사회가 된다면 내 몸도 떳떳해질 수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언제가 될 지는 잘 모르겠어.

제이 맞아. 내 몸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다보니까 옷을 고를 때도 상체는 드러내면 안 되고, 장애는 덜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 어느 날은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너는 그 옷 입으면 안 될 것 같아. 몸이 다 드러나잖아.” 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 왜 나는 입고 싶은 거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상관없어. 내 맘대로 입은 지 몇 년 됐는데 앞으로도 쪽 그럴 거야!!! 보고 있나?!!! ㅋㅋㅋㅋ

새까매진 무릎을 보며 굉장히 만족스러웠지!

앤 내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었을 때 머리를 하고 싶어서 미용실에 갔어. 근데 미용사가 이 머리는 매직을 해도 꾸준히 관리해줘야 한다고 하는 거야. 나도 내 머리를 ‘관리’하고 싶어서 내 돈 주고 하려는 건데... 문제는 나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시설종사자만 보고 이야기하고, 근데 더 화나는 게 뭘 줄 알아? 미용사가 종사자를 보면서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야! 아니 머리하는 사람은 나고! 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건 뭔데...!!!

한별 맞아. 나도 시설에 있을 때 머리를 기르고 싶었는데 커트로 통일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 내가 원해서 자른 게 아니라 단순히 ‘돌봐주는 사람’이 관리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자를 수밖에 없었어.

험 나는 시설에 있지 않았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너 무 공감해. 주위에서 자꾸 통제하니까 나는 어디에서도 거추장스럽고, 매력적이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내 머리를

마음대로 한다는데, 상대가 오히려 답답해하고 그냥 묶으라고 하니까. 진짜 오버하는 거 아닌가...?

빨간 속마음 옷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하는 사람한테 결정권이 주어지는 것 같아. 왜, 내 몸에 맞는 사이즈에 옷을 좋아하는데 입히기 힘들니까 무조건 큰 옷을 사라고 해. 나도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보조하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데...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먼저잖아. 그래서 계속 눈치싸움 중이지...

라인 나도 ‘입히는 사람 생각 좀 해라’ 이런 말 많이 들었어 ㅋㅋㅋㅋ.

한별 내 몸을 보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잖아. 사실 활동보조인에게도 보여주기가 싫거든. 근데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내 몸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살이 찼네, 배가 나왔네’ 등...의 말로 평가하는 게 싫은 거지.

앤 활동보조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인들이 한마디씩 하잖아. 내가 치마바지를 입었는데 ‘재 봐, 팬티 다 보이게’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바로 쫓아가서 “치마바지거든요!!! 그리고 팬티 보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왔어... ㅋㅋㅋㅋ

빨간 속마음 ‘너도 이런 거 입어?’라는 뉘앙스가 있지... 옷가게에 가서도 ‘언니는 이거 입기 불편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편한 옷을 추천해줘. 정말....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있었어.

제이 나도 옷에 대해 할 말 많아!!! “너는 기어 다니니까 까만 바지, 회색바지만 입으라고.” 까만 바지만 산 거 있지. 나중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검은색 안 입을 거라고!!! 흰색만 입을 거라고!!! 흰 바지만 샀어 ㅋㅋㅋㅋ 그래서 맨날 무릎만 새까매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굉장히 만족했지 ㅋㅋㅋㅋ

한별 맞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입고 싶은 거 아니겠어?

내 몸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

발바닥

안 걸어다녀서 정말 애기 피부

허벅지

강직 때문에 근육이 잘 보여

보조개

왼쪽 볼에 쪽 들어가 있는 인디언보조개

눈

쌍꺼풀이 없는 눈이 참 좋더라고

곱슬머리

이보다 자연스런 컬은 있을 수 없어

I

생리

나의 첫 생리

첫 생리 어땠어?

24

앤 나는 생리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중학교 3학년이 끝날 즈음에 학교에서 갑자기 터진 거야. 그 때 생리 양이 엄청 많아서 입고 있던 하얀 블라우스에 다 묻고... 새빨간 피를 처음 보니까 놀라기도 했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무섭기도 했어. 왜냐면 친구들은 다해도 나는 안하겠거니... 생각했는데, 마음의 준비도 없이 시작해버렸으니까.

제이 나도 그랬어. 내 몸이 한 번도 여성의 몸이라고 생각해보본 적이 없었으니까. 생리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 그래서 생리 시작했을 때, 축하해달라고 혼자 신났었거든 ㅋㅋㅋㅋ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는 기쁜 것보다 걱정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 엄마가 어떤 걸 걱정하는 지 너무나 잘 알지만...! 뭐,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 오히려 덤덤했지.

한별 나도 좀 일찍 시작했었어. 중학교 1학년이었나. 목욕하려고 옷을 벗었는데 팬티에 피가 묻어있는 거야. 생리인 줄 모르

니까 무시하고 그냥 씻고 있었는데 계속 나오니까 이상한 거야 ㅋㅋㅋㅋ 같이 살고 있는 언니들한테 물어보니까 생리라고 알려줬어. 그 때 언니들한테 생리대 하는 거나 뒤처리 하는 방법들을 배웠던 것 같아.

빨간 속마음 생리에 대해서 할 말 진짜 많은데...!!! 왜, 생리를 처음 시작하면 주변에서 축하해주기도 하잖아. 나는 “생리대도 혼자 못 처리하니까 호르몬 주사 맞아야겠다.”가 부모님의 첫 마디였어. 그 때는 어렸으니까 이 말에 반박도 잘 못했지. 그 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화가 나.

물맨두 그래도 요즘은 ‘생리’에 대해서 숨기거나 모른 척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는 분위기 인 것 같아

한별 맞아! 생리 용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생리대 파동의 영향도 있겠지만, 월경을 하는 여성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자신의 몸에 맞는 월경 용품들을 찾는 시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

앤 내 주변에도 탐폰, 기저귀, 생리컵 등... 자기 몸에 맞는 생리 용품을 찾아 써보는 친구들도 있어. 서로 뭐가 좋은지, 뭐가 불편한지 장단점도 이야기 하고.

순동이 응, 근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리컵은 잘 안 떠올라. 그래서 나는 생리를 하는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생리용품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드러났으면 좋겠어.

25

라인 맞아!!! 생리대를 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조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몸의 특성 혹은 업무 특성 상 오랫동안 생리대를 교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생리대를 구입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제이 뭔가 엄청나게 혁명적인 생리 용품의 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몸을 가진 여성들의 경험들이 이야기 되면 좋겠다...!!!



영화 속 장애여성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보고

기록집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장애여성을
다른 영화를 보고 대담을 진행하기로 했
다. 여러 영화 중 우리는 이누도 잇신 감독
의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앤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

라인 나는 조제가 무시당하는 장면. 장애인이고 여성이기 때문
에 더 수동적이고 약한 존재로 비춰지게 앵글을 잡은 것이 아
닌가. 그리고 조제가 휠체어를 거부하고 츠네오에게 업혔다
는 것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
였어. 그런데 츠네오랑 헤어진 이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거든.
그런 환경의 변화가 개인의 생각과 생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제이 나는 츠네오가 오랜만에 찾아왔을 때, 자신의 본심을 다
털어내면서 가지 말라고 잡는 장면.

빨간 속마음 그 장면에 참 복잡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

앤 그 전에 조제에게 찾아온 이웃남자에게는 조제가 어쩔 수
없이 부탁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츠네오는 자기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니까 붙잡지 않았나.

한별 영화에서 조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담담한 편인데, 감정
도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런데 츠네오의 시골집에 간다고 한 이
후부터 감정의 변화가 느껴지는 장면들이 있었고, 시골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잘 드러난 것 같아. 그
시간들이 조제에게 있어서 더 단단해 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
고.

앤 츠네오의 친구이자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여자가 조제네 집
에 오는 장면도 흥미로웠어. 사회복지를 전공한다는 이유로 조
제네 집에 견학 와서는 조제를 구경거리처럼 여기잖아. 실제로
우리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서 일상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감정이입을 많이 했어. 상대는 선한 목적으
로 다가오지만 부담스러운 그런 경험들. 보면서 어땠어?

물맨두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볼수록 관점이 많이 바뀌
는 영화라고 생각해. 한 인간이 성숙해지는 데에 있어서 인간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고. 조제 본인도 이야기하
지만, 츠네오를 만나기 전 조제는 그저 어두운 바다 밑에서 데
굴데굴 굴러다니는 조개껍데기같이 닫힌 사람이었는데, 츠네
오를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 가
는, 한 여자의 성장기?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 처음 봤을 때는
멜로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제이 나는 또 흥미로운 게 조제가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선택
하는 데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았다는 것. 물론 조제가 츠네
오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라도 나의 욕구를 표현한
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나랑 해도 돼.”, “너랑 세상에서

가장 야한 짓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던가, 먼저 이불을 펴고, 스스로 옷을 벗고 하는 장면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

순둥이 처음에는 나도 츠네오가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겨우 20대 중반인 애였던 거지. 영화 초반에 조제의 유모차에 스케이트보드를 달아서 뽕뽕 달리고 할 때는 즐거웠지만, 유모차가 고장 난 후에 조제를 업고 다니면서 장애여성을 평생의 반려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닐까. 조제를 업는다는 행위가 츠네오가 느끼는 삶의 무게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어.

한별 그런데 남자가 떠난 게 아니라, 여자가 떠난 것은 아닐까?

앤 그럴 수도 있어. 지금은 그렇게 보여. 츠네오가 조제에게 있어서 사회로 연결해준 연결고리 같은 존재인데, (처음 다가온 것은 츠네오이지만) 둘의 관계에서 조제가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그 관계의 정리도 조제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아. 츠네오가 마지막에 앉아서 엄청 우는데, 지금 다시 보니 누가 떠난 건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이 차인거지.

앤 차인 걸까?

헴 모르겠다. 그 후에 조제는 어떻게 살았을까?

빨간 속마음 혼자서 잘 살았을 것 같아. 독립적으로.

한별 내 생각에는 동료상담을 했을 것 같아.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컸잖아. 밑바닥에서부터 전동휠체어를 타고 사회로 나오

기까지 보인 스스로 경험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또 다른 나를 이끌어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이 강렬하지 않나. 크게 느꼈을 것 같고.

앤 츠네오가 조제를 업고 다니는 것이 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사실 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다만, 시골에 내려가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 과정에서 한계를 느낀 것이지. 일본 사회에서도 장애에 대한 인식은 여기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츠네오에게는 없었던 것이지.

제이 그러면 남자친구가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자하면 어떨 것 같아?

빨간 속마음 나는 왜? 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네 부모님은 너나 편하지 나는 안 편한 존재잖아. “우리 사이를 허락받고 싶어, 나는 너를 잘 설명할 수 있어.”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혼할 사이라고 합의되지 않는 이상 서로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 아닌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굳이 만날 필요가 있을까.

한별 그럼 반대로 애인이 나의 가족을 소개시켜 달라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라인 왜? 왜 보고 싶을까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앤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닐까?

제이 결혼보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의미가 아닐까?

빨간 속마음 나는 애인이 우리 집에 오고 싶다고 하면 오라고 할 것 같기는 한데, 반대로 애인이 본인 집으로 오라고 하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는 것이 어떤지 아니까.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남자가 장애인인데 비장애인 여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가는 과정을 보여줬어. 남자가 여자네 집에 들어가고 오디오만 들리는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더라고.

물맨두 나도 별로일 것 같아. 먼저 두려움이 앞설 것 같아.

제이 물론 우리가 서로의 가족을 소개시켜준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어야 한다면... 그걸 꼭 감수해야할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파트너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닐까?

앤 결혼이 전제라고 하면 어쨌든 서로의 관계에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

라인 그렇게 같이 겪어내려면 작업들을 많이 해야지. 그렇지만 같은 장애가 있더라도, 여성이 불리한 것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앤 맞아. 장애여성의 다양한 경험들이 영화에 다 담길 수는 없지만 오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 속 장면들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내 경험과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장애여성이 나오는 영화 자체가 거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장애여성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영화들이 나오면 좋겠어. 물론 이 영화도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관계나 주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자위

장애여성이 자위를
상상하는 방법

자위...? 너무 흥미로운 주제 아니야?

36

한별 성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한 시기가 20대 초반이었어. 그 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한 동영상’도 접하지 않았거든. 친구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 ㅋㅋ 그래서 처음으로 ‘자위’를 검색했었고, 알고 보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했어. 근데 자위...는 손으로 해야 하는 건데 난 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ㅋㅋㅋㅋ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지.

제이 이런 주제를 언급하고 다루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성, 자위. 이런 단어 자체를 말하기 어렵잖아. 그런데 이제는 어떡냐고 물으면 이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솔직하게. 그게 성이던 관계이던 말이야.

순동이 음.. 난 자위하는 방법을 몰랐어. 고등학교 때 성교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 이 부분은 재생산권(임신, 출산, 피임, 관계, 양육을 통틀어 이르는 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말이야. 그래서 나 스스로 많이 찾아

봤지. 섹스에 관련된 책도 읽고 내 몸에 맞는 자위 방법도 연구해보고 사실 예전에는 생각해볼 수 없었던 내 세계가 많이 넓어진 것 같아. 내 욕망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

라인 맞아,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너무 중요한 거 같아. 사실 이전까지 경험했던 성적인 경험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꼭 파트너가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알게 됐어. 그리고 이건 파트너와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준 거 같거든. 내 몸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

험 그것도 그렇고, 자위를 하려면 혼자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없어...!! 우리 ‘장애여성 자위하기 좋은 곳’이라는 주제로 접근성 지도 한 번 만들어볼까? ㅋㅋㅋㅋ

앤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궁금한 게 자위는 손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

한별 난 손이 안 되는데 어찌지 ㅋㅋㅋㅋ

빨간 속마음 괜찮아. 샤워기도 있어.

제이 지구상에 있는 대다수의 물건이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춰져 있지 않아. 만들어야 하는데....

라인 맞아...!!! 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비장애 중심이잖아. 자위기구 부터가... 외국의 경우 손을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리에 끼고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건강관리용품으로 나와. 우리나라는 장애여성 자체를 성적인 존재로 보지 않아서...

37

정말 많이 개선되어야 해.

물맨두 진짜, 이런 고민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어...!

한별 성 담론, 그런 거 보면 장애남성 위주가 많아.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왜 항상!!! ‘생리가 귀찮아서 자궁을 적출하는 이야기’만 나오는지 안타까워. 자위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는데 말이야...ㅋㅋㅋㅋ

빨간 속마음 맞아. 그리고 자위는 나 혼자, 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야 한다고 봐. 내가 좋아하는 몸의 감각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 방법도 다양한데 자위에 대한 생각이 협소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좁아지는 것 같아. 뭐부터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니까, 성적 자존감이 낮다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담아낼 수 있게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한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도 ‘장애여성’의 문제로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험 안에서 더 많이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어.

섹스토이, 상상해봐



|

섹스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

관계 안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한별 이성애연애를 전제로 이야기했을 때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보여 질지 고민하잖아...! 이 관계에서 여성이 평등한 위치에 있기 어렵다보니까 내 몸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남자들은 배 나오고 이래도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 혹시 그런 경험 있어?

험 나는 긴장을 하면 몸이 뻘치거나 꼬이니까. 파트너한테 내 몸을 보여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

앤 맞아.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체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잖아. 지금 생각해 보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가장 처음 시작할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비장애중심의 체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잖아, 예전에는 이런 게 미안한 감정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물맨두 미안한 마음? 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앤 음... 관계 안에서 전반적으로 그래왔으니까. 왜, 비장애중심의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연애를 하면 놀이 동산도 가야하고, 도시락도 싸야하고, 뭐 그런 각본 같은 게 있는데 나는 못하니까ㅋㅋㅋㅋ 자신이 없었던 거지.

라인 나도 그랬어. 사실 나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내 몸에 맞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 고민을 파트너와 잘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답답했지.

한별 맞는 말이야. 근데 상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려면 그만큼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 정말 중요하잖아. 솔직히 둘만 있는 관계에서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니까 그것도 정말 어려운 문제지.

물맨두 그치. 쉽지 않은 일이야. 혹시 파트너한테 내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던 경험 있어?

빨간 속마음 체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만났던 파트너가 내가 할 수 있는 체위를 고민해왔었던 적이 있었거든ㅋㅋㅋㅋ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 나만 혼자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 느낌? 사실 용기가 필요한 건, 시도를 하는 것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가능하지 않았을 경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혹은 파트너의 반응에 대한 고민이 드니까.

험 맞아...! 파트너와의 관계가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지. 나

상상하는 건 늘 재밌잖아

한테도 첫 경험은 두렵고 불안하기만 했었는데 상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

한별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필요성이 있지. 다들 어떻게 생각해?

빨간 속마음 나는 대놓고 말하는 편이야. 여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다. 흥분되는 것 같다. 이렇게? 섹스는 같이 즐겨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내가 좋아하는 감각도 공유할 수 있어야지.

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괜찮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여성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잖아. 예전에는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 물론 지금은 아니야! 막 이야기해야 돼!!! ㅋㅋㅋㅋ

험 맞아 ㅋㅋ 파트너에게 활동보조를 요청해야 할 때도 있는데 나는 옷 입혀줄 때 무슨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싫더라고.

빨간 속마음 기분이 안 좋는데 활동보조 때문에 화를 못 낸 거 아니었을까? ㅋㅋ 그리고 나는 책임이라고 생각해. 당당하게 요구해야지!!! 벗기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관계 안에서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계속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ㅋㅋ 이건 진짜 중요하다니까!!!

제이 나도 동의해 ㅋㅋ 내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파트너와 잘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공부도 필요하고. 뭘 알아야...!!! 고민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ㅋㅋㅋㅋ

한별 나는 욕조에 들어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ㅋㅋ 욕조에 들어가는 게 판타지 였어. 실제로 시도도 해봤거든?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 왜 몸에 물이 묻으면 무거워지잖아. 일단 좁고 계단도 있고, 결정적으로 내가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못 나올 뻔 했어... ㅋㅋㅋㅋ. 나오자마자 정말 잘 잤지. 피곤했나봐.

순둥이 아 진짜? 나도 비슷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욕조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지면 어찌지 하고 고민되더라고. 사실은 어렸을 때 미끄러진 적이 있거든.

빨간 속마음 나는 화날 때 격렬한 섹스를 상상해 ㅋㅋ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활체어 발판을 빼고, 침대 위로 올라가고 등등... 파트너에게 활보를 최소한으로 받고 싶은 날도 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거야 ㅋㅋㅋㅋ

앤 음... 나는 방에서 영화 보는 거? 격렬한 것은 별로. 아까 목욕 이야기도 했지만 현실이 막 떠올라서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정적인 것 보다는 소박하게 조용 조용히?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 하면서 달아오르면 ㅋㅋ

한별 나도 시도해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성욕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내 몸의 좋은 감각을 알아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방법들을 고민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더라고. 파트너가 새로운 성적 시도를 하는 사람이면 좋겠고, 휠체어에서 하는 것도 재밌을 거 같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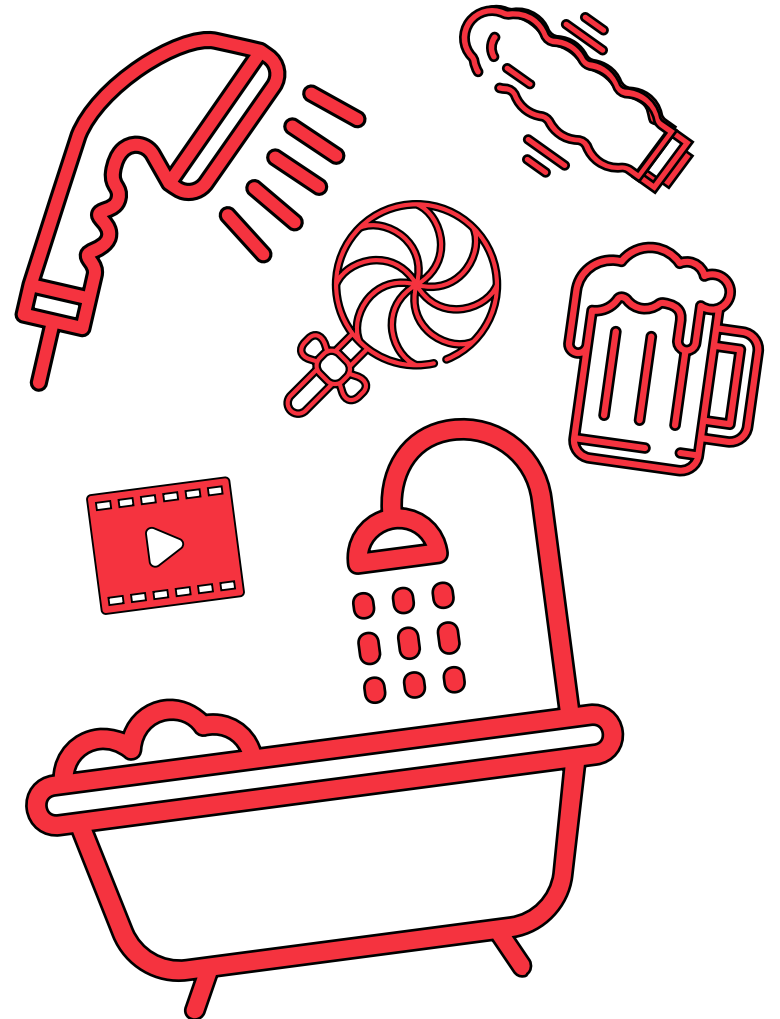
제이 섹스토이를 이것저것 사봤는데 손에 묶고 하고 하니까 나름 괜찮았어. 파트너랑 할 때에도 섹스토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중요한 건,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그렇게 된다면 아마 장애여성이 자위나 섹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거야.

46 **빨간 속마음** 나는 휠체어에서 자위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어...! 엉덩이도 걸쳐 앉아야 하니까 불안하더라고 ㅋㅋㅋㅋ

라인 그래서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내 몸을 잘 안다고 생각해도 새로운 때가 많잖아.

제이 맞아.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됐거든. 혀에 쓰는 바이브레이터나 달달한 사탕을 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분위기도 중요해. 사람마다 감각은 다 다르니까.

내가 좋아하는 감각을 찾아가는 것



I

독립

독립에 대한 로망
독립이 어려운 이유

독립은... 계속 도전받는 과정이지 않을까?

물맨두 다들 독립을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어?

앤 음... 나는 가족들이 나를 어린 아이 취급하는 분위기를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독립을 준비하게 됐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 있잖아.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내 의견을 내거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니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거지. 결국 싸우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 긴 싸움을 포기했다면 독립을 포기했겠지?

빨간 속마음 그렇구나, 싸우는 건 진짜 힘들지만 중요하니까...! 나도 요즘 독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복잡하지만... 독립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경제적인 부분이잖아.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하는데 물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선택지가 많이 없는 게 현실이야.

한별 맞아. 물리적인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집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보면 적당한 선에서 계약하고 싶은데 접근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잖아. 문제는 월체어가 들어 갈 수 있는 집이

려면 적어도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에 있는 원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비싼 집을 구해야 돼!!!

제이 사실 어딜 가도 나에게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렵지만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접근성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결국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 때 월체어가 현관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서 문 밖에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충전하려면 문을 열어놔야 하니까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어쩌나 불안함이 컸던 것 같아.

앤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야. 나는 집주인이 집 망가진다고 장애인은 계약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돈도 있고, 집도 마음에 드는데 장애 때문에 거부당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ㅋㅋㅋㅋ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운'에 맡겨야 하는 일인 거야.

라인 집 구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ㅋㅋ 사실 독립이 물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을 바꿔야 이전과 다른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잖아. 지금 독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독립을 해서 변화한 점들이 있어?

순둥이 나는 혼자만의 공간이 없었는데 이 공간에서 자유를 느끼는 기분이 너무 좋아. 친구들도 데리고 올 수 있고, 생활패턴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

한별 독립의 가장 큰 매력은 '자유'겠지?ㅋㅋㅋㅋ 나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좋았어. 가족과 같이 있을 때는 외박을 하거나 늦게 들어갈 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앤 나도 가족들과 따로 산지는 10년 정도 됐어. 근데 공간을 나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독립은 끊임없는 과정인 것 같아... 그래도 취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삶의 가장 큰 활력소거든. 나는 어스름한 새벽 시간에 심야영화를 보고 나오는 그 길을 좋아해.

제이 심야영화 너무 좋다...! 근데 항상 드는 고민은... 내가 활동보조가 필요하니까, 원하는 걸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면 일 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틀 안에서 밤늦게 들어갈 수 있을까. 머리를 많이 쓰고 있지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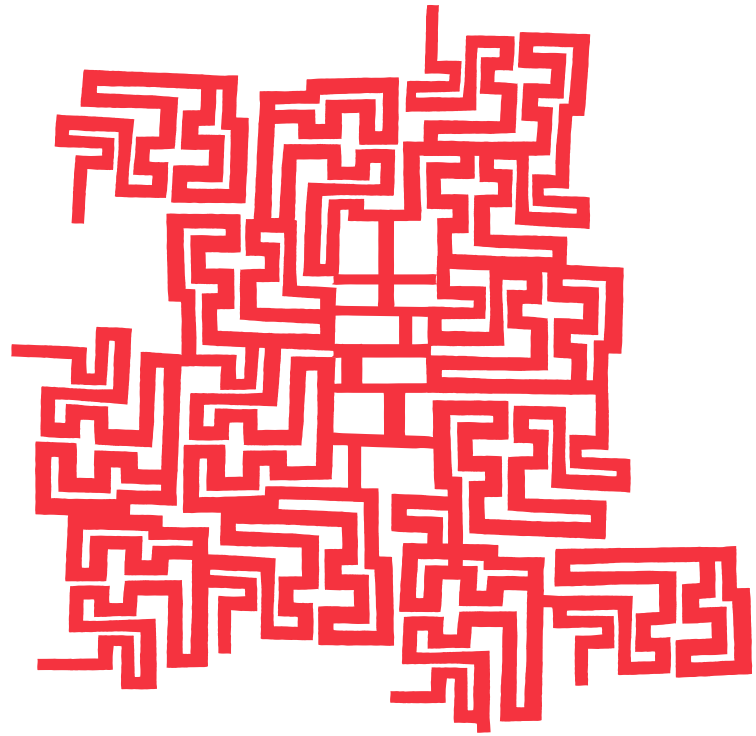
한별 나는 내 방이 없고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데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걸 너무 좋아해서 문자보다 통화하는 게 더 좋거든. 근데 가족들이 밤에 자니까 통화를 못하게 해. 그래서 꼭 독립하고 싶어!

빨간 속마음 맞아,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독립하고 나서 이게 과연 독립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왜냐하면 재활원에 있다가 그룹홈에서 독립을 시작했는데 외출을 하면 보고해야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

제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 나도 독립하고 나서 집에서 다 벗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좋아. 그리고 야한 영화도 볼 수 있잖아ㅋㅋㅋㅋ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주말에 늦게 일어나서 라면 먹는 거! “그런 거 먹으니까 살이 안찌지”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내가 생각하는 독립은



54

혼자 사는 것 또는 가족과 분리되는 형태.
자유, 책임, 정서적, 경제적 독립
네버엔딩퀘스트. 메이플 스토리 같은 거
나 스스로,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과의 약속.
부모님, 활동보조인과의 끊임없는 줄다리기
의지와 의존이 필요

편집자 후기

이 책은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리얼리티하게 담아낸 기록집입니다. 이 리얼한 기록집을 통해 장애여성의 경험들이 자유로이 존중받길 원하고 공감해주시기를... -제이

모든 장애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당당히 말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한별

짧은 시간 준비하느라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저희가 나누는 고민과 생각들을 즐겁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앤

아직 이 안에 담기지 못한 이야기도, 담기지 않은 이야기도 많으니 앞으로 레드립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켜봐주세요! -물맨두

‘장애여성의 경험’으로 시작된 이야기들이 나의 경험과 맞물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인

55

#Re_드림

56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배복주

편집인

조미경

발행처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주소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664 대우한강베네시티 상가 101동 409호

전화

02-441-2313

※ 이 자료집은 서울특별시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